

창의도시 소식 및 활동

- 바르셀루스,**
포르투갈

바르셀루스 공예 및 민속 예술: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동력
- 수코타이,**
태국

700년의 역사를 지닌 수코타이 끌롱 매 램 뽀 운하의 기억과 도전과제
- 치앙마이,**
태국

치앙마이: 국내 및 해외 창의도시와의 네트워크
- 파두카,**
미국

퀵트와 섬유 예술로 인간 경험의 이야기를 전하는 파두카
- 샤르자,**
아랍에미리트

탈리 이야기: 샤르자의 문화적 및 창조적 교류 교역로 확대
- 비엘라,**
이탈리아

팬데믹 기간 동안 유네스코 창의도시 비엘라의 1년



바르셀루스, 포르투갈

바르셀루스 공예 및 민속 예술 :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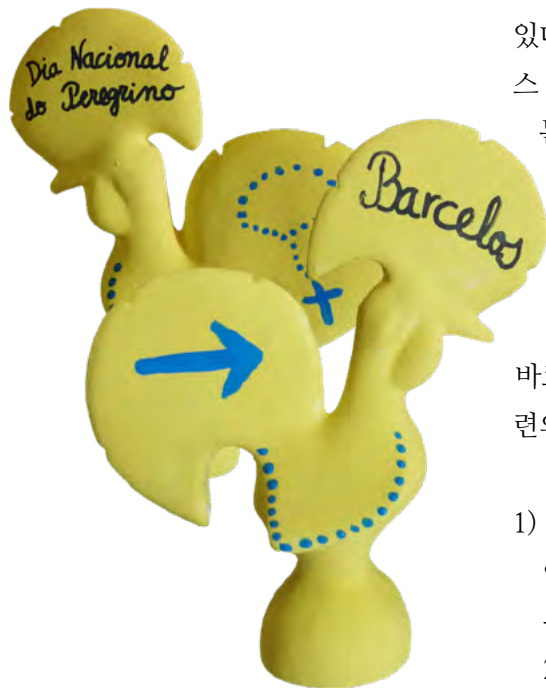
유네스코 창의도시 진주
© 진주창의산업진흥회

132

바르셀루스(Barcelos)는 포르투갈의 북쪽 지역에 위치해 있다. 바르셀루스는 목수, 대장장이, 자수 공예가, 바구니 공예가, 그리고 도예가 등으로 널리 알려진 지역으로, 오랜 세월을 걸쳐 쌓인 도시의 명성은 공예 및 민속예술과 관련이 있다. 또한 바르셀루스는 포르투갈의 가장 인기 있는 상징 중 하나인 바르셀루스 수탉(Galo de Barcelos)의 본고장으로 유명하다. 12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바르셀루스는 창의 부문과 강한 유대를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오늘날, 그 부문은 이 도시의 활동 인구 중 8% 정도를 차지한다. 이 도시는 창의 부문의 활력을 지원하고 새로운 세대의 장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바르셀루스 시는 민속예술을 활성화하고 지역적 창의 부문을 장려하기 위해 일련의 행동과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 그 중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전국 공예품 및 도자기 전시회** : 이 전시회는 지역 및 국가 전통 예술 및 공예를 홍보하기 위해 고안된 이니셔티브다. 이 전시회는 바르셀루스의 주요 투자 중 하나로, 지난 37년 동안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에는 진행되지 않았다).



- 2) **예술 프로젝트** : 이것은 바르셀루스 시 자치단체가 기획한 것으로 10년 넘게 진행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문화 중심의 교육을 추진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예술 활동을 늘리고,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며, 학교 중퇴율을 줄이는 것이다.
- 3)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전략 계획** : 창의성을 도시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 군데의 공간들이 개발되었다. 중세 타워, 도기 박물관, 그리고 관광 공예 및 민속예술 사무소가 그 훌륭한 예들이다. 이 공간들은 문화 활동을 진행하고, 장인(匠人) 지식, 전통, 문화의 보존을 증진하는 문화 공간이다.
- 4) **진행 중인 개발 사업** : 바르셀루스 시는 문화적 및 창의적 공공 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새로운 공공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을 개발하고 있다.

- 5) **공예품 연례 전시 프로그램** : 이 프로그램은 지난 15년 동안 다양한 국내 및 국제 공공 공간에서 연속적으로 매달 전시회를 열어 모든 지역의 제품 및 장인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6) **공예 및 전통예술과 함께 하는 창의관광** : 이것은 체험 워크숍과 관광을 포함하는 지속적이고 다양한 창의관광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바르셀루스는 다음과 같이 도시의 창의 부문을 국제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 2017년, 도시 부문에서 '전국 공예 비엔날레 상'을 수상했다.
- 2017년, 공예 및 민속예술 분야에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CCN)의 회원 도시가 되었다.

①	- 왼쪽
②	

① 수타 페인팅 워크숍
② 산티아고 순례길을 주제로 한 바르셀루스 수타

①	③	① 목재 공예 ② 자수 공예 ③ 바구니 공예 ④ 철 세공
②	④	





2018년, 케이프베르데(Cape Verde, 카보베르데)의 상도밍구스(São Domingos) 자매 도시와 함께 도예가를 위한 교육 워크숍으로 구성된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 2019년 6월, ‘창의 친화 목적지’로서 창의관광네트워크(Creative Tourism Network)의 공식 회원이 되었다.
- 2019년, ‘바르셀루스 창의도시-보다 지속가능한 관광을 향한 공예 및 민속예술의 기여’라는 주제로, 유럽문화관광 네트워크의 ‘문화·창의관광에 대한 문화·창의산업의 기여’ 부문에서 1위를 수상했다.

바르셀루스는 공예 및 민속예술의 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의 유용하고 지속가능한 제품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좀 더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실용 식기에 관한 지역의 도자기 생산을 활용하여, 미식 클러스터와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지역 식당 및 호텔에서에서의 사용을 장려해 새로운 용도를 제공한다.
- 현대 예술가 및 새로운 개념과 지역의 전통 이미지 간의 교류를 촉진한다.
- 바구니 공예 기술과 디자인 간에 새로운 접근 방식을 장려하여, 이 방식을 새로운 건축 환경 및 현대의 목적과 통합한다.

나아가, 바르셀루스는 다음과 같이 주요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다.

- 바르셀루스 시 관광과는 2016년부터 모든 국내외 관광 박람회 및 회의에서 ‘활기차고 창의적인 도시 바르셀루스(Barcelos Lively and Creative City)’라는 홍보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
- 바르셀루스는 형상화(Imagery), 도기(Pottery), 크리보 자수(Crivo Embroidery) 등과 같이 전통 제품에 대한 인증을 부여해 이 제품들의 품질과 진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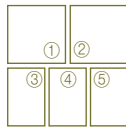
① 도기
② 소규모 수공예 시장

현재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바르셀루스는 2020년부터 다음과 같은 조치 및 활동을 실행하여 특정 부문을 지원하고 있다.

- 창의 부문의 지속가능성 보호를 위한 지원 서비스 팩 제작 : ‘장인 공동체를 위한 운영 지원’ 및 ‘바르셀루스 수공예 홍보 인센티브 제도’는 수공예 공동체와 창의관광을 지원하는 운영 강화 프로그램이다.
- 소규모 수공예 시장 : 8월과 9월 매주 목요일마다 열리는 이 시장은 창의 부문의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창의 체험 워크숍 : 일반 대중, 여러 지역의 장인 및 전통 공예 간의 교류를 촉진한다.

- 야간 타워(Tower by Night) : 8월의 매주 토요일 밤 중세 타워를 대중에게 공개한다. 이 활동은 지역 창의관광에 활력을 불어 넣었으며 수공예품 판매를 증가시켰다.

이러한 전략들은 바르셀루스의 창의 공동체를 홍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관광객 유치 과정의 핵심 요소이자, 무엇보다도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공동체 발전을 위한 기본 요소이기 때문이다.



- ① 이미지 형상화 워크숍
- ② 목재 공예 워크숍
- ③ 바구니 공예 워크숍
- ④ 철 가공작업 워크숍
- ⑤ 자수 공예 워크숍





수코타이, 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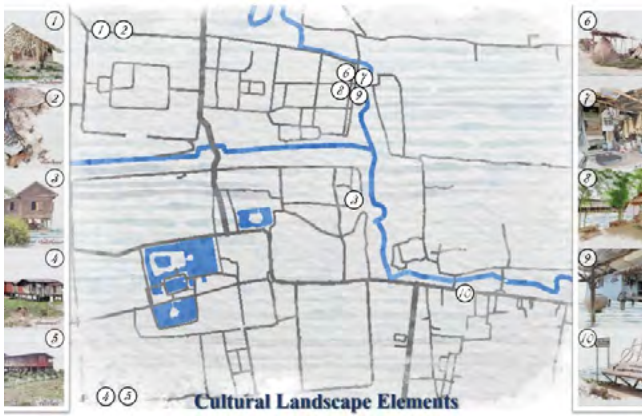
700년의 역사를 지닌 수코타이 끌롱 매 램 뺨 운하의 기억과 도전과제

수코타이 시대부터 700년의 역사를 지닌 운하 끌롱 매 램 뺨(Klong Mae Ram Pan)을 주제로 창의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활동의 장이 열렸다. 이 행사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CCN)의 임무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활동들은 공예 및 민속예술을 통해 문화 유산을 창의 부문에 통합하는 것이다.



첫째, 이 운하에 대한 전시회를 개최하여 상갈록(Sangkhalok, 수코타이 도자기의 독특한 양식)을 해외로 운반하던 주요 물류 노선인 끌롱 매 램 뺨의 문화 경관 요소를 소개했다. 여기에 소개된 물 기반 문화 경관 중에서 기억에 남을만한 일부 작품들은 지역 주민들의 향수에 젖은 이야기와 함께 전시되어 방문객들에게 운하와 연결된 이 지역의 장소감(sense of place)을 상기시켰다.

둘째, 이 행사는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수코타이 UCCN 지역 파트너를 포함한 공공부문, 민간부문, 교육부문, 지역부문 등)이 참여하는 2개의 세션이 열렸다. 첫 번째 세션은 이 역사적 운하를 다시 활기



차고 더욱 생산적으로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었고, 두 번째 세션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달성하기 위해 끝론 매 램 뻐의 수변(水邊)과 그 주변 지역을 개발하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으로서 UCCN 체계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토론이었다. 수변 활성화를 위한 대안적인 실천 방안에 대한 논의를 비롯하여, 현재 이 운하에 관련된 문제들이 제시되었다. 매 램 뻐 창의 지구 개발을 위한 실행 계획이 수코타이의 UCCN 임무 관련 사업 중 하나로 제안되었다. 셋째, DIY 공예 워크숍이 열려 모든 관객들이 자신만의 '한 번 해 봐요(give it a go)' 공예품을 만드는데 참여할 수 있었다.

위에 언급된 활동들은 72명의 참가자와 함께 수코타이 트레저 리조트(Sukhothai Treasure Resort)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이 창의적 행사는 '지속가능한 도시 및 지역사회'에 대한 지속가능발전목표 11(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을 달성하기 위한 지역 기반 접근방식으로 UCCN이 여러 협력 기관들을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지 보여 주었다. 이 행사 중 세미나와 전시회는 나레수안 대학 건축학과가 진행한 학술 서비스의 일부였으며, 주로 태국왕립학회의 지원을 받았다. 또한, DIY 워크숍은 수코타이 공예 및 민속예술 기업가들이 주관했으며, 공공기관인 지속가능관광 관리청(Designated Areas for



2020 러이 끄라통 축제의 수코타이 창의 공예



러이 끄라통 등불 축제(Loy Krathong and Candle Festival)는 수코타이에서 열리는 가장 큰 축제이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10대 축제 중 하나다. 이 축제는 매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수코타이 역사공원(Historical Park)에서 열리며, 태국인들은 끄라통(꽃, 촛불, 향으로 장식한 바나나 또는 다른 잎으로 만든 나뭇잎 배)을 물에 띄워 물의 신에게 경의를 표하며 소원을 빈다. 이 축제는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도시의 경제를 증진시키기 위해 개최되고 있으며, 수코타이주 자치단체, 공공 및 민간 부문, 그리고 도시 안팎의 지역사회들이 주도하고 있다. ‘수코타이 창의 도시 구역(Sukhothai Creative City Zone)’이 2020년 러이 끄라통 등불 축제(10월 23일-11월 1일)와 함께 기획되었는데, 이 구역은 2019년 10월 30일 수코타이가 공식적으로 UCCN 공예 및 민속예술 분야의 창의도시에 지정된 후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다.

Sustainable Tourism Administration)의 지원을 받았다. 모든 협력자들 간에 UCCN 임무에 부합하는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 수코타이 창의도시는 가까운 미래에 코로나19 위기에서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모든 가능한 일을 추진할 예정이다.



수코타이 근교 모든 지역의 다양한 공예 및 민속예술 (도자기, 보석, 섬유, 목공예 및 고리버들 제품, 장식 품 공예 등)이 학습 또는 판매 목적으로 여러 형태의 활동(전시, DIY 워크숍, 가판대, 노점 등)으로 제공되고 있다. 수많은 방문객들이 부츠 공예에 참여해 자신들만의 선물을 가져갈 수 있었다. 이곳은 세계 유산 건축물과 수코타이 고고학 유적지를 중심으로 설계되었으며, 태국 내에서 야외 공예 시장을 보여주는 가장 큰 장소이다. 이 축제의 콘셉트는 복고풍 시장 분위기로, 이는 현지 재료로 만들어진 지역 특유의 상점과 가판대 건물 양식에서 볼 수 있다. 인상적인 점은 이 축제에서 사람들은 전통 의상을 입고, 공예를 배우고, 쇼핑을 즐기며, 무엇보다 문화유산의 영광과 수코타이 창의도시의 번영을 감상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축제는 성공적이다.

수코타이 역사공원, 수코타이주 자치단체, 수코타이주 행정청, 지속가능관광 관리청(DASTA), 태국 정부 관광청, 공공 및 민간 기관, 지역 파트너, 그리고 수코타이 주민들 덕분에, 수코타이는 UCCN 임무와 라이끄라통 등불 축제를 통합하는 데 큰 성공을 거두었다

위티야 피통나푸

태국 나레수안 대학 건축학과,
태국 UCCN 수코타이 공동 담당자



치앙마이, 태국

치앙마이 : 국내 및 해외 창의도시와의 네트워크

유네스코 창의도시 진주
© 진주창의산업진흥회

최근 치앙마이는 모든 관련 분야에서 창의도시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강화하며, 이미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정된 도시 및 회원 도시 가입을 준비 중인 도시들과 경험을 교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치앙마이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치앙마이는 해외 국가들을 방문해 토착지식을 교류하고 회원 도시로서의 경험을 나누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2019년 5월에는 한국의 진주에서 열린 제 4차 창의도시 국제포럼과 진주세계민속예술비엔날레에 참여했다. 그 후 진주 실무팀도 치앙마이를 방문하였고,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 치앙마이의 소중한 문화유산 개발을 알리고 모범 사례들을 공유했다. 이 기간 동안 진주는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2019년 10월 30일 진주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공예 및 민속예술 분야의 회원으로 지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기뻐했다.



치앙마이는 공예 및 민속예술 분야에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CCN) 회원 도시이자 세계공예협회(World Crafts Council)가 인정한 ‘세계 공예도시’이다. 치앙마이는 람팡(Lampang) 주나 람퐁

* 사진 출처 : <https://www.creativecitychiangmai.com/en/home-eng>

(Lamphun) 주와 같이 이웃 지역이면서 비슷한 문화를 공유하는 지역들과 지식을 공유하고 경험을 교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치앙마이의 또 다른 역할로는 창의도시 개선을 위한 원동력으로서 문화가 적용되고 사용되는 방식을 지원하는 것이다. 견고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도시 개발의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치앙마이는 모든 규모의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치앙마이는 현재 난(Nan)주와 협력해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를 위한 난주 종합계획 추진방안’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난이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우리는 독특한 공예와 뛰어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난이 국제적으로 알려지고 인정받아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 또한 치앙마이는 팻부리(Phet Buri), 수판부리(Suphan Buri)주, 치앙라이(Chiang Rai)주 등과 같이 창의도시 가입을

희망하는 주들에게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보급하고, 또한 주 행정청, 지속가능관광 관리청(DASTA) 또는 각 주의 자치단체 간 협력 하에 효과적인 실무 과정을 지도해주면서 이들의 역량을 강화해오고 있다.

공예 및 민속예술 분야의 도시들과 협력하는 것 외에도, 다른 창의 분야와의 부문 간 프로젝트나 통합적인 협력을 장려하여 지식의 확대와 창의적인 개발에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치앙마이는 2019년 9월 한국의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휴먼시티 디자인 서울’ 행사에서 전통 예술과 공예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였고, 음식 창의도시인 전주도 방문하였다. 전주 방문 이후부터 치앙마이는 전주와 함께 지역 음식과 관련된 지식 교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각 도시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그들의 토착지식을 알리는 기회를 가질 것이고, 이는

← 왼쪽
① 란나(Lanna) 모자

① 대나무 직조
② 직물 짜임
③ 목각





파신틴쪽쫄통(Pha Sin Teen Jok Jomthong)

음식 문화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치앙마이는 항상 UCCN의 회원 도시로서 헌신해 왔으며, 네트워크의 다양한 회의에 참여해 왔다. 예를 들면, 이탈리아 파비아노에서 열린 연례 회의, 일본 가나자와에서 열린 공예 및 민속예술 서브네트워크(Sub-Network) 회의,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 등에 참여해 실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식을 확대하며 개발 방법을 제고했다. 또한 치앙마이는 이 기회들을 통해 전통 종이 공예와 금박 공예 등과 같은 소중한 문화 자산을 소개했다.

국제 협력 외에도, 치앙마이는 국내 여러 도시들과 시너지를 창출했다. 치앙마이는 푸껫(Phuket)주가 개최하는 ‘21세기 푸껫 구시가지 구정 축제(21st Phuket Chinese New Year and Old Phuket Town Festival)’에 참가 요청을 받아, 그 축제에서 창의도시 홍보 전시회를 선보였다. 또한 치앙마이는 수코타이와의 관계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코타이가 등재 신청을 준비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계속 도움을 주었다. 수코타이가 공식적으로 창의도시로 지정된 후, 치앙마이는 효과적인 실무 과정에

대해 실무팀에게 조언을 하였으며 서로의 경험을 나누었다.

위에서 언급한 활동들은 태국 정부의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과 공존이 가능한 활동들이다. 주요 창의도시 이니셔티브 주체로서, 치앙마이주 행정청과 치앙마이 대학은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의 달성을 위해 정책과 개발 구상 플랫폼을 적용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들은 부문 간 협력 하에 지식을 통합하고 지역 주민에게 직접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파두카, 미국

퀼트와 섬유 예술로 인간 경험의 이야기를 전하는 파두카

퀼트만큼 세계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것은 없다. 세상이 계속 변하는 동안, 그대로 남아있는 한 가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간의 상황을 섬유에 담았는가를 하는 것이다. 섬유는 모든 경제적 배경을 가진 개인들이 가능한 모든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주요 도시와 농촌 마을에서 창의적 표현의 한 형태로 수백 년 동안 사용되어 온 매개체이자 예술 형식이다.



미국 켄터키주 파두카(Paducah)에 위치한 국립 퀼트 박물관은 방문객들에게 이러한 인간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또한 전 세계 퀼트와 섬유 예술 공동체의 이야기를 관객들에게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양한 퀼트 및 섬유 예술의 전시를 통해, 우리는 퀼트가 아닌 인간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한다. 우리는 모든 방문객에게 현재 자신의 세계관을 벗어나서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자신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인식하고, 이해하며, 공감하는 데 있어서 변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20년에 박물관은 기본 인권과 관련된 많은 문제를 다루었다. 이 전시들은 다양한 창작자에 의한 전시를 비롯해, 17개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달성하는 데 문화가 기여한 점을 보여주었다. 그 예로는 불평등 감소, 성평등, 육상 생태계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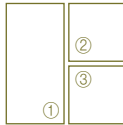
‘우리 이야기: 직물에 나타난 인권 이야기(OURstory: Human Rights Stories in Fabric)’ 전시의 특징은 전세계 인권의 역사를 논의하는 예술가들의 전 지구적

표현이었다. 45명 이상의 예술가들이 인종 차별, 성 차별, 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 성소수자 인권, 미국 원주민 권리,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종교의 자유 등의 주제에 대한 논평을 냈다. 또한 2020년에 박물관은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미국 수정헌법 제 19조 통과 100주년을 기념했다. ‘여성의 투표권: 혁명과 발전’ 전시회에서 예술가들은 평등과 투표권을 이끈 투쟁을 잘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들을 묘사했다. 인권에 대한 주제에 이어 박물관은 모든 사람의 평등한 권리를 옹호하는 미국 단체인 ‘사회정의 바느질 아카데미(Social Justice Sewing Academy)’의 청소년 킬트 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 왼쪽



- ① 파두카 국립퀼트박물관, 캔터키주, 미국
- ② 루아나 루빈(Luana Rubin), “북극곰 (Polar Bear)”. ‘멸종위기종에서 영감을 받아’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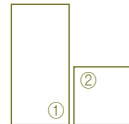
- ① 메리 제인 스네이드(Mary Jane Sneyd), “인종차별 없는 세상 (Colorblind)”. ‘우리 이야기: 직물에 나타난 인권 이야기’ 중에서.
- ② 사라 트레일(Sara Trail), “강한 힘 안에 고이 잠드소서, 트레이븐(Rest in Power, Trayvon)”. 사회정의 바느질 아카데미(Social Justice Sewing Academy)
- ③ 파두카 국립퀼트박물관, 캔터키주, 미국





또한 올해 박물관은 동물권을 다룬 ‘멸종위기종에서 영감을 받아’라는 전시회를 열어, 현재 전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170여 종의 동식물을 조명했다. 관람객들에게 동식물 멸종을 촉진하는 관행들에 대해 교육을 함으로써, 현재의 인식, 미래의 정책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전 지구적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리는 것이 목표다.

우리 삶에 있어서 음악의 중요성이 올해 두 차례의 박물관 전시회에서 직물을 통해 살아났다. 스튜디오 아트 쉐드 어소시에이츠(SAQA)는 ‘뮤지카(Musica)’라는 전시회를 통해 그들에게 영감을 주고 동기를 부여한 음악을 보여주는 40여 점의 예술 작품을 전시했다. 아티스트인 마이클 커밍스(Michael Cummings)는 ‘아프리카 재즈 시리즈’ 전시를 열어 미국 재즈 음악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파두카 근처에



- ① 캐럴린 스케이(Carolyn Skei), “내 마음 속에, 산 안토니오를 (San Antonio on My Mind)”. SAQA의 ‘뮤지카’ 중에서.
- ② 마이클 커밍스(Michael Cummings), “조세핀 베이커 (Josephine Baker)”. ‘아프리카 재즈 시리즈’ 중에서.



는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로 선정된 캔자스시티 (Kansas City)가 있다.

퀼트 공예가들은 퀼트라는 역동적인 예술 형태를 사용하여 그들만의 독특한 삶의 경험을 세상과 공유하는 놀라운 예술가들이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모든 인류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결국에는 우리 자신이 더욱 인간적이 된다.

국립퀼트박물관은 파두카에서의 박물관 체험 및 디지털퀼트박물관(Quilt Museum Digital)과 같은 새로운 가상 플랫폼을 통해 더 많은 관객들에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선사할 수 있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www.quiltmuseum.org에서 찾을 수 있다.

* * * * *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중 하나인 파두카는 일년 내내 퀼팅 예술과 현대 퀼트 예술가를 기념한다. 국립퀼트박물관과 같은 문화 파트너들은 퀼트 전통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예술 형태로 성장하는 것을 계속 지원하면서, 혁신적인 예술가들을 조명하고, 사람들 간의 중요한 대화를 장려하며, 문화유산과 경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파두카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www.paducah.travel을 방문하기 바란다.



샤르자, 아랍에미리트

탈리 이야기 : 샤르자의 문화적 및 창의적 교류 교역로 확대

유네스코 창의도시 진주
© 진주창의산업진흥회

148

탈리(Talli)는 여성 장인들이 손으로 짜서 끈을 만드는 토착적인 공예 기술이다. 전통적으로 집에서 이루어지는 이 공예 작업은 여성에게 중요한 수입이나 생계 수단이다. 옷깃, 소매부리 및 옷단을 장식하는 데 사용되는 탈리는 지역사회 내에서도 그 밖의 지역에서 선물, 거래 또는 교환의 수단이기도 했다.

이르티 현대공예협회(Irthi Contemporary Crafts Council)의 지원을 받고 있는 탈리는 아랍에미리트 샤르자의 해안 지역에서 여전히 행해지고 있다. 이곳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해상 무역로의 교차로에 위치한 곳이자, 그 지역 해안에서 태어난 선원들의 고향이기도 하다. 탈리는 샤르자 문화유산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집단 정체성과 공동체 유대를 보여주는 국보로 간주된다. 탈리 공예는 실 짜기와 기술 거래의 세대 간 교류를 통해 지식과 기술이 전승되는 곳, 기하학적인 패턴이 노래 및 대화와 어우러지는 곳, 그리고 나눔이 삶의 방식인 곳, 즉 가정에서 이루어진다. 탈리 안에는 어머니의 손에서 딸의 손으로, 노래하는 목소리에서 듣는 귀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교류 과정이 담겨 있다.

* 모에즈 아슈르(Moez Achour) 사진(이르티 현대공예협회 제공).



샤르자는 페르시아만과 오만만 사이의 해안이 있는 유일한 토후국(emirate)이다. 6,000여 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이 마을은 이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곳으로 성장했고, 이곳 주민들은 농업, 사냥, 어업 및 진주 채취와 함께 무역과 항해에 의존해서 수입을 얻는다.¹ 고대부터 지역 곳곳이 청동기시대 초기 지역 교류 네트워크(기원전 3,000년)의 일부를 형성하였고, 구리와 소금 등과 같은 원자재가 수출품이었으며,² 나중에는 다양한 물품들이 오만, 인도, 페르시아 등지에서 수입되었다. 샤르자의 진주 채취 산업은 작은 마을 중심으로 시작해서, 페르시아만 전역에 걸쳐 그리고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 심지어는 케냐와 잔지바르에 이르기까지 무역로가 개설되면서 중요한 무역항으로 성장했다.³ 19세기경에 샤르자는 이 지역의 주요 항구였다. 유럽인들에게 있어서

샤르자는 인도로 가는 교역로의 전략적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곳은 교역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실제로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이 정기적으로 이 해안을 차지하기 위해 전투를 벌였다.⁴ 카와심(Qawasim) 부족은 뛰어난 선원들이었으며, 2만명의 선원을 태울 수 있는 대형 선박을 건조하여 샤르자가 19세기 말까지 주요 정치적, 경제적 중심지가 되는 데 일조했다.

샤르자, 탈리 그리고 과거 교역로 간의 연관성을 발견하기 위해, 샤르자 해안에 있는 디바 알 히스(Dibba Al Hisn)에 위치한 비드와 센터(bidwa Centre)의 장인들에게 그들이 기억하는 이야기들을 들려 줄 것을 요청했다.



1. Rashid, N.A., *Sheikh Sultan Life and Times* (Dubai: Motivate Publishing, 2010).

2. Charbonnier, J. "The Genesis of Oases in Southeast Arabia: Rethinking Current Theories and Models," in *Oases and Globalisation: Ruptures and Continuities*, ed. E. Lavie and A. Marshall (Cham, Switzerland: Springer, 2017).

3. Searle, M. *Geology of the Oman Mountains, Eastern Arabia* (Switzerland: Springer Nature, 2019).

4. Rashid, N.A., 위의 책.



지역 거래만 할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연결망은 아랍에미리트 밖으로 넓어졌고, 따라서 수공예품을 거래하기 시작했어요”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기본 재료는 오만과 이란에서 수입하곤 했는데, 가끔씩은 재료들이 지역마다 달랐어요”라고 덧붙였다.

탈리 재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실은 파키스탄과 인도에서부터 주요 회사들이 위치해 있는 두바이까지, 그리고 다시 디바 알 히스까지 배로 보내졌어요. 우리는 이곳에서 1-2주 동안 머무는 배의 상인들로부터 실을 사곤 했어요. 그들은 탈리를 하는 집들을 알고 있어서 우리에게 재료를 가져다 주었어요. 우리는 오래된 탈리 물건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았어요. 그 물건들 속에 있는 크오스(khose, 야자 나뭇잎 줄기)는 금처럼 귀한 것이니까요. 우리는 오래된 탈리 물건들을 모아 간직했어요. 이것들을 상인에

국제 교류와 관련하여 그들은 “과거에는 오만이나 이란과 같은 나라에서 여성들이 찾아와 우리 탈리와 그들의 탈리를 교환했어요”라고 말했다. 두 번째 장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 했다. “예전에 우리의 활동은



* 모에즈 아슈르(Moez Achour) 사진(이르티 현대공예협회 제공).

게 돈을 받고 팔거나 필요한 재료와 교환하기도 했어요.”

토후국의 문화는 사람들을 통해 전해지고,⁵ 이러한 대화와 교류에 대한 탈리의 이야기는 잘 확립된 샤르자의 교역로를 새로운 창의적 탐험의 길로 확장시키고 있다. 중동, 북아프리카 및 동남아시아(MENASEA) 무역의 교차로에 있는 샤르자의 전략적 위치는 이전부터 지금까지 무역에 큰 이점이었으며, 또한 샤르자의 기업가정신과 함께 창의성, 문화, 문명의 등불이라는 명성을 설명해 준다.

샤르자의 통치자이자 아랍에미리트 최고위원회 위원인 셰이크 술탄 빈 무함마드 알 카시미(Sheikh Sultan Bin Mohammed Al Qassimi)는 “문명은 단순한 건물이나 기본 인프라 그 이상입니다. 여기에는 장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의식, 믿음과 역사 유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⁶ 라고 했다. 샤르자는 탈리의 보호를 비롯해 지역 유산을 보존하는데 전념할 것이다. 손으로 직접 만든 작품으로서 이 공예는 사람들을 연결하기 위해 기술 플랫폼에 의존하는 21세기의 모습과 대조를 이룬다. 점점 더 디지털 방식의 삶이 늘어나고 있지만 탈리는 절대로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캐스린 베스트 (Kathryn Best)
샤르자 시 연락담당자

5. SCTDA, Sharjah: Heart of Culture (Dubai: Explorer Publishing, 2019).

6. S. Kay, Sharjah Heritage and Progress (Dubai: Motivate Publishing, 2006)에서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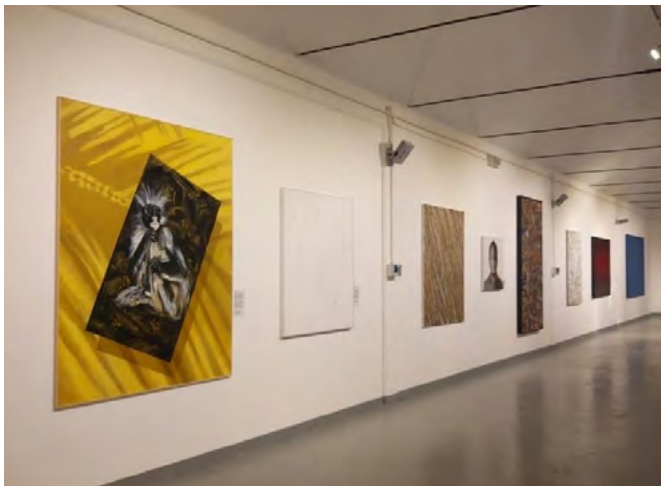
비엘라, 이탈리아

팬데믹 기간 동안 유네스코 창의도시 비엘라의 1년

유네스코 창의도시 진주
© 진주창의산업진흥회

비엘라(Biella)는 2019년 말 공예 및 민속예술 분야에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CCN)에 가입했다. ‘예술 공예’는 양모 섬유 생산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비엘라의 전통 유산의 핵심 요소다. 이 지역의 섬유 제조의 우수성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13세기부터 그들 자신만의 문화 정체성을 증진하고 강화하면서 국제 무대에서 경쟁을 해 온 지역사회 전체의 노력 덕분이다.

오늘날 비엘라는 비탈레 바르베리스 카노니코(Vitale Barberis Canonico), 세루티(Cerruti), 로로 피아나(Loro Piana), 피아첸차(Piacenza), 레다(Reda) 및 제냐(Zegna) 등과 같은 유명 브랜드의 본고장이다. 장인 기술과 제조 창의성이 특징인 비엘라의 경제는 항상 이 지역의 충실한 동맹자인 환경을 존중해 온 보기 드문 경쟁적 이점이 있다. 실제로 이 지역은 몇몇 계곡의 물과 샘 등의 천연자원을 물려 받아서, 섬유클러스터의 탄생과 발달에 확실히 유리했다. 따라서 미켈란젤로 피스톨레토(Michelangelo Pistoletto)가 그린 ‘세 번째 낙



원(Third Paradise)'의 로고가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 신청을 위한 도시의 상징으로 채택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 로고는 인간의 손과 자연의 화해를 상징하고 있으며, 둘 사이의 새롭고 균형 잡힌 관계를 구축하는 의미다. 또한 창의도시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는 6개의 프로젝트는 산업 생산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며, 이는 2030 유엔 의제 목표 9, 11, 12, 13, 14 및 15에 해당된다. 창의도시 신청 과정은 비엘라주 시장 74명 전원이 지지한 이 지역의 첫 번째 이니셔티브로서, 이 지역 전체의 의지, 통합 및 헌신을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였다. 또한 신청서에 포함된 프로젝트 중 또 다른 주제인 '직조 관계(Weave Relations)'는 현재 진행 중인 이탈리아-나미비아 협력 사업이다. 비엘라는 나미비아 양모 생산 지역의 주요 중심지인 케트만스호프(Keetmanshoop)에 교육(비엘라에서 나미비아 기사에게 워크숍 제공)을 제공하고, 나미비아가 앞으로 공예 및 민속예술 분야의 신청 후보가 될 수 있도록 멘토십을 할 것이다. 나미비아 기관 및 기업의 고위급 대표들로 구성된 파견단이 일년 전에 비엘라를 방문하였으며, 오늘날 두 도시는 공동 양해각서를 작성 중에 있다.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코로나19는 거버넌스 구축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실행을 진행 중이던 작업도 중단시켰다. 그러나 비엘라는 창의도시로서의 새로운 지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새롭게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창의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첫 번째 주요 이니셔티브는 10만 장의 보호 마스크를 생산하는 것으로, 시타델라르테-폰타지오네 피스톨레토(Cittadellarte-Fondazione Pistoletto) 재단, 라니피치오 세루티(Lanificio Cerruti) 및 이탈리아 적십자가 참여했다. 미켈란젤로 피스톨레토와 디자이너 겸 기업가인 니노 세루티의 브랜드 시그니처가 새겨진 이 마스크들은 이탈리아 적십자의 자원봉사자들과 지금까지도 코로나 퇴치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비엘라 병원에 기부되었다. 이 지역의 창의적인 분야와 기업 분야 간의 협력으로 비엘라는 또 다시 부를 창출하게 되었다.

새로운 시작의 신호로 2020년 9월 5일, 비엘라 유네스코 창의도시의 첫 후원자이자 촉진자인 CRB (Cassa di Risparmio di Biella) 재단은 사람들이 지





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주제인 ‘시각 예술과 자연의 대화’를 국제 예술가들이 다루는 축제인 셀바티카(Selvatica)를 시작했다. 프랑코 페라리스(Franco Ferraris, CRB 재단 회장)는 코로나19에 따른 봉쇄 조치 이후의 첫 번째 예술 행사에서 모든 안전 기준을 준수할 것이라고 공언하면서, 이 행사는 “다시 살아난 도시에 있어 중요한 순간이며” 그리고 “축제는 창의성의 승리”라고 말했다.

창의도시로서 유네스코의 인정은 이미 국제적인 창의적 예술가들을 끌어들이었다. 파트리크 살레타(Patrick Saletta)와 장 르 귀야르데르(Jean Le Guyarder)는 비엘라, 특히 예전의 섬유 공장이었던 라니피치오 프리아(Lanificio Pria)의 2만m²에 달하는 산업 건물의 일부를 국제 미술 갤러리의 완벽한 장소로 지목했다. 이 장소의 이름은 울브리지 갤러리(Woolbridge Gallery)이고, 2020년 10월 10일 개관한 이후 2년 안에 면적 전체를 채울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새로운 창의적인 목적을 위해 오래된 공장 건물을 용도에 맞게 재사용함으로써 오래된 산업 건물을 보존하고 도시 자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비엘라 유네스코 창의도시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었다.

네트워크, 유연성, 상징적 문화적 특성을 현재 경제 성장과 혁신의 기둥이라고 생각할 때, 문화적 특성이 생산되고 이용되는 창의문화산업은 경제 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비상 시기에 대처해야 한다. 이는 회원 도시 간의 협력에 토대를 두고 있는 UCCN의 경우에 더욱 적용이 가능하다. 유네스코의 지정 덕분에, 비엘라는 창의성과 혁신의 강력한 동력을 가진 도시로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은 현재와 같은 위기의 시기에 지역 경제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될 것이다.

엘리사 피가(Elisa Piga)

CRB 재단 인턴